

동물병원 할인에 장례비까지... 카드사 '펫팜족' 공략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카드 애견·미용샵 등서 혜택
KB국민 동물병원 이용 30% 할인
신한카드 장례비 20만원 등 지원
삼성카드 펫 정서 위한 음악서비스



KB국민카드의 KB국민마이펫반려애견카드



카드업계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를 맞아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할인에 특화된 카드부터 전용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5.1%에 달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만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며 반려견 1마리를 기르는데 필요한 비용은 월평균 10만3000원, 반려묘는 7만8000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용 사료시장은 연평균 19%의 성장률을 보였고, 반려동물 용품시장 역시 최근 5년간 9.6%씩 늘었다.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 또한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카드 출시 '급물살' 카드업계는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최근 반려동물 특화카드인 '마이펫 카드(가칭)'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마이펫 카드는 '펫팜족'을 위해 ▲애견 ▲미용샵 ▲미용샵 ▲병원 등에서 풍성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펫코노미카드' 및 'KB국민마이펫반려애(愛)카

드' 등을 내놓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KB국민펫코노미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동물병원 결제대금의 30%를 할인한다.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터파크펫(PE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을 구입할 때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의 상해 보장 단체보험에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KB국민마이펫반려애카드는 동물병원·펫숍·약품구매·장례업체 등 애완동물 업종에서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관련 상품 구입 시 5%를 청구할인해 준다.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은 유기반려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기부된다.

이어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에서도 각각 탭탭(taptap) I 카드와 아임 조이풀(I'M JOYFUL) 카드를 통해 동물병원 이용 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해 반려인의 눈길을 끈다.

◆전용 음악까지...펫 특화서비스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할인혜택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직접적인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는 카드사들도 등장했다.

신한카드가 최근 개시한 '펫케어 프리미엄 서비스'는 반려견과 관련한 보험 가입은 물론 장례비까지 보상한다. 반려견 장례비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한편, 견주가 상해 등으로 수술을 받게 돼 반려견을 위탁하게 될 경우 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삼성카드는 자사의 반려동물 커뮤니

티 서비스 '아지냥이'를 통해 수의사 등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 관련업체 할인쿠폰 증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삼성카드는 아지냥이에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새롭게 적용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편하고 빠르게 반려동물의 질병과 양육 방법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비스 내 수의사들 또한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1:1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했다.

삼성카드는 또 아지냥이의 반려동물 전용 음악을 인공지능(AI)스피커에 연동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애완을 넘어 반려(伴侶) 즉, 짝이 되는 인생의 동무나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동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관련 시장은 카드 상품 마케팅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카드사들은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용품의 할인과 더불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우리금융, 국제자산신탁 인수... "비은행 강화"

경영권지분 65.74% 인수 결의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국제자산신탁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65.74%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권 지분 65.74% 가운데 우선 44.47%를 인수하고 나머지 21.27%는 약 3년 후 취득하기로 했으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지분 요건(발행주식수 기준 50% 이상) 충족을 위해 1차 거래시 우리은행이 기보유중인 국제자산신탁 지분 6.54%도 함께 인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조만간 국제자산신탁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신탁사 인수는 지난 4월 자산운용사 인수 성공에 이어 지주 출범 이후 두 번째 M&A 성과로서 지주체제의 조기 정착과 함께 1등 종합금융그룹 목표 달성을 위한 비은행 확충 전략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자산신탁은 2007년 후발주자로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기준 수탁고 23조 6000억원, 당기순이익 3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47%의 높은 수익성을 시현했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영관리 및 리스크관리 노하우와 은행을 비롯한 계열사와의 협업체제가 접목되면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국제자산신탁 인수시 그룹 부동산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은행 등 그룹사와 함께 차별화된 종합부동산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캐피탈, 저축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부문 확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퀴즈 풀고 토크하고... 윤종규식 유쾌한 소통

(KB금융그룹 회장)

직원 600명과 '타운홀미팅' 유튜브로 콜센터 직원 격려 셀카 찍고 질의응답 시간도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그룹 내 직원들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KB금융은 윤 회장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휴게공간, 카페 등 자유롭고 편안한 장소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약 6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으며, KB증권·KB국민카드 등의 경우 행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타운홀미팅은 그룹 및 계열사의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것을 비롯해 주요 이슈 등에 대한 토론, 모바일 퀴즈, 윤 회장의 즉석 답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B증권 타운홀미팅에서는 콜센터 근무직원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상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점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에서 그룹경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고민을 올리자 윤 회장이 "비대면 채널이 확대될수록 콜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순 작업은 챗봇이나 보이스봇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근무환경 개선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콜센터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타운홀미팅 종료 후에는 윤 회장이 추천도서 5종을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직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등 격의 없고 캐주얼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타운홀미팅은 그룹 내 집단지성을 강화하고,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통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최고경영자(CEO)와 직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t@

NH농협은행 '창립 58주년' 연 2.1% 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농협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고객사는큰만큼 실세예금'을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금은 NH스마트뱅킹,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해 최소 가입금액 300만원부터 최고 금액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2개월이며, 연 2.1%확정금

리(세진)를 제공한다. 총 판매한도 20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허옥남 NH농협은행 디지털마케팅 부장은 "이번 고객사은예금은 농협 창립 58주년을 기념해 농협은행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중기부, 신한금융과 1조 벤처펀드 조성

금융권 첫 '자상한 기업'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와 신한금융지주회사,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서울 성수동 신한두드림(Do-Dream)스페이스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자상(자발적 상생협력)한 기업' 발굴시리즈의 세 번째 협약이다. 1차는 지난 5월 13일 네이버와 소상공인

연합회, 2차는 포스코와 벤처캐피탈협회와 맺었다. 이번 3차 협약으로 금융권에서는 처음 참여해 신한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의 투자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협회가 함께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5월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융자중심 방식을 탈피해서 기업투자를 늘려달라는 박영선 장관의 주문에 대한 금융권의 첫 화답으로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벤처펀드 투자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청년취업 촉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은 2022년까지 2000억원 출자를 통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향후 정부의 벤처스케일업 펀드 조성에도 참여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특별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벤처기업협회의 추천과 연계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배한남 기자 ericabae1683@